

치 사

한해의 수고로움에 보답하듯 천등산에도 오색의 정취가 물들어 오고 있습니다. 국화향 또한 이곳을 찾는 모두에게 고결하고 엄숙함으로, 마음 깊이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듯 한 해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내 안의 연음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지혜로운 절기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시기에 후학의 본분과 선대의 공덕을 기리는 마음으로 중창불사를 회향하게 되어 치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중창은 전통문화의 바탕아래 사회와 이웃에 함께하겠다는 종단의 발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에, 봉정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삶과 사회에서의 실천을 마음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봉정사를 포함하는 교구본사 고운사는 최근 문화, 복지, 청소년 지원 등, 현시대의 요구를 하나씩 성취하며, 희망을 이루어 나가는 모범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봉정사 중창이야말로 대표적인 실천이자, 종단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조화롭게 계승하고 모든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치로서 뛰어난 일이며, 물질 우선주의로 물들어 가는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고 정신문화의 보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선대의 수승한 유산과 시대마다 함께한 역사와 전통은 온화한 숨결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봉정사 중창 회향은 힘겨워하는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행복을 전하고,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뜻 깊은 수확입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마음까지 나누어 삶의 존재로서 행복을 깨닫게 하는 진실한 손길이, 모두의 공덕으로 넓게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단의 중요한 소임에 공심으로 헌신하면서도 종단이 나아가는 향방을 십분 이해하고, 원력과 실천으로 결실을 성취하신 자현스님의 진력에 깊이 감사하며, 소임자와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늘 교구의 일뿐 아니라 종단의 대소사에 마음을 써주시는 본사주지 호성스님께도 고마움을 드리며, 진솔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권영세 안동시장님과, 지역을 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시는 김광림 의원님, 그리고 항상 교계의 일에 헌신하시는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대종사께 공경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하신 사대부중 여러분의 청안함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선 산문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마음의 도량이기를 바라며, 상서로운 봉황의 날개짓처럼 오늘의 불사가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조화로운 삶에 감동하며 항상 행복한 나날이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